



루터의 도시를 가다

19

마르부르크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1529년은 마르부르크 (Marburg) 대학이 세워진 지 2년이 지난 해였다. 그 해 필립공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지도자들을 모아 신앙 고백의 주요 신학적 논제를 논의하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독일의 루터파와 스위스의 개혁주의 파가 주동이 되었다. 그런

데 필립공의 의도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의견을 통일하여 구교도에 대한 저항 전선을 펴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해 10월 독일과 스위스 각처에서 지도자들이 모여들었다. 루터와 쾰링을 위시하여, Ph. 멜랑크톤, M.부처, J.외코람파드, J.쉬투름, C.헤디오, J.요나 1세, A.오시안더, J.브렌츠, S.아그리콜라 등이 그들이었다. 명실공히 종교개혁 시대를 대표하는 신앙지도자들이며 신학자들이었다. 그들이 다룬 주제는 성찬식에 관한 것이었다. 루터는 성찬식을 집행할 때 성찬에 그리스도가 실재로 임재한다고 주장했고, 쾰링은 성찬은 신앙의 고백이며 기념이라고 이해했다. 이 논쟁은 해가 지나도 화해되지 못했는데, 필립공은 자신의 영토에서 서로 다르게 이해되는 성찬론이 하나로 통합되기를 기대했다. 신앙고백이 같아야 정치적으로도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처의 집념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찬론에 대한 두 개의 이견은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비록 루터와 쾰링이라는 거물급 개혁가들이 만나기는 했지만, 그래서 1529년의 마르부르크 종교회의는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행사가 되었지만 성찬에 대한 이해의 본질적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루터파와 개혁주의파 신학 논쟁은 끝내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다. 이 모임은 필립공으로 하여금 막강한 힘을 구축하게 했지만 루터파 독일로부터 스위스의 개혁주의파가 결별하는 아픔을 낳게 하였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루터는 종교회의가 만족스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렬되자 쾰링과 자신 사이에 놓여있던 탁자보를 가위로 잘랐다고 한다. 마르부르크 종교회의가 이루지 못한 연합은 나중에 독일 내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의 조직체인 슈말칼덴 동맹이 결성하게 될 때 스위스 개신교도들이 참여하지 않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의 분열이 성경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니 역설적이라 아니할 수 없는 대목이다.

글 |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